

“국내최초로 신탁사업 시작했습니다”

글 유인종 편집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신탁 · 의사결정지원센터 개소식(2015. 11. 30)과 신탁재산의 올바른 사용을 감독하는 신탁관리위원회 위촉식(2016. 1. 14). 이봉주(오른쪽 사진 우측 네 번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장이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공무원 등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40대 지적장애 여성 씨는 최근 부모의 사망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상속했다. 유일한 형제로 미국에 사는 오빠와 법정상속분을 나누어도 역대 유산이었다. 후견인 역할을 해온 어머니는 재산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문을 두드렸다. 협회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같은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와 성인기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사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협회가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발달장애인 신탁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발달장애인 또는 부모(위탁자)의 재산(금전 또는 부동산 등)을 협회(수탁자)에 맡기면 신탁이 개시된다.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수익자)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신탁재산은 맞춤형 금고와 같아서 수익자 이외의 어떤 사람도 신탁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국내의 발달장애인은 2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전히 미흡해서 아산재단은 2015년부터 10년간 이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고, 이 계획에 따라 자폐인사랑협회 등 9개 기관을 지난해에 선정했다.

“국내에서는 낯선 방식이다. 10년 전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지만 10여 건 계약에 그쳤

다. 복지계에서도 우리 신탁제도를 벤처사업으로 여기는데 엔젤 투자자처럼 후원을 결정해준 아산재단이 고마울 뿐이다.”

신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신탁 · 의사결정지원센터’(센터장 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서 부센터장으로 상근하며 신탁 및 후견 계약 등의 설계와 체결을 지원하는 전창훈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사망 이후를 걱정한다. 홀로 남겨질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도 제대로 관리될지 불안해한다”면서 “2015년 말까지 불과 두 달 만에 11건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은 부모들이 절실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협회를 어떻게 믿고 재산을 맡기느냐는 우려를 지우기 위해 감독 겸 자문기구인 ‘신탁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200여 사회복지단체에 40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